



연구기관과 기업의 완벽한 하모니 연구소기업 200호, 단단한 성장가도를 달리다

연구소기업 (주)일슬레드

올해 초 영신창업투자회사가 생기관과 손 잡고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다. 바로 특별한 OLED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(주)일슬레드다. 투자사가 투자를 택하지 않고 직접 기업을 세운 점이 상당히 이례적인데, 이는 그만큼 OLED 소재 기술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 기술의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. (주)일슬레드가 연구소기업 200호에 선정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.

우수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는 연구소기업

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연구에만 머문다면 그 기술은 우물 안 개구리일 수밖에 없다.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. 이에 정부는 우수 기술이 산업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, 그중 하나가 바로 연구소기업이다.

연구소기업이란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 중 20% 이상을 연구기관이 직접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.

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의 기술과 기업의 자금 및 경영 노하우,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혜택이 결합해

연구 기반을 갖춘 전문 기업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. 이 같은 장점 덕에 최근 연구소기업은 창조 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. 실제로 8년간 89곳의 연구소기업이 문을 연 반면, 연구소기업 200호가 탄생하기까지는 고작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. 최근 연구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.

200번째 순서를 맞아 정부가 선정한 기업은 일슬레드. OLED 디스플레이 소재·장비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일슬레드는 '이온성 액체(ILs) 기반 하이브리드 정제법(이하 ILs 정제법)'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낸 연구소기업이다.